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8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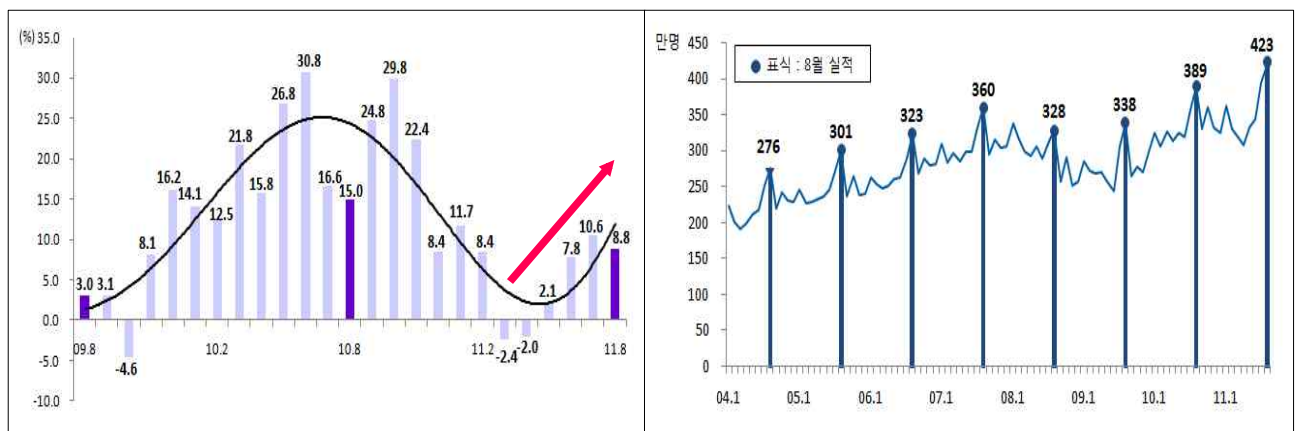
'11년 8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 여름방학 및 휴가, 광복절 연휴 등을 이용한 여행수요 증가로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8.8%, 5.3% 증가, 항공화물은 세계경제불안, IT수출입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0.0% 기록

국제여객

2011년 8월 국제여객은 원화강세, 여름방학, 휴가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8.8% 증가한 4,233,715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역대 최대실적으로, 최고점이었던 전월대비 7.4% 증가함으로써 기록을 갱신한 것이었다.

아래 <그림 1>은 국제여객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과 실적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아래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8월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8.4%, 8.8% 증가하며 공급력과 수요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공항은 대구공항으로, 이는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 개최(8.27~9.4)로 인한 중국·일본 임시편 운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전년대비 46.3%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하계기간 필리핀, 태국 등의 신규노선 운항에 따른 수요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광복절 연휴, 여름방학, 휴가기간을 이용한 내국인의 여행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6.0% 증가하며 개항 이래 월별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전년대비 31.3% 증가하며 전월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중국 운항증대에 따른 여객실적 증가(전년대비 174.8% 증가)와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홍콩, 필리핀, 태국)에 따른 신규수요가 창출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노선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운항이 시작된 김포-베이징노선의 여객수요가 기존의 홍차오노선의 여객수요보다 약 13%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8월	11년 8월	전년대비	10년 8월	11년 8월	전년대비
인 천	18,976	19,930	5.0%	3,177,593	3,369,012	6.0%
김 포	1,237	1,736	40.3%	278,469	365,575	31.3%
김 해	2,172	2,594	19.4%	295,199	350,107	18.6%
제 주	570	670	17.5%	86,147	97,288	12.9%
대 구	136	187	37.5%	17,368	25,402	46.3%
청 주	175	125	△28.6%	24,494	14,916	△39.1%
무 안	63	76	20.6%	9,457	9,744	3.0%
양 양	36	13	△63.9%	3,466	1,671	△51.8%

그 외에 상반기동안 일본 대지진 이후 외래객 방문객이 감소하였던 제주공항은 여행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월에 이어 8월에도 전년대비 12.9%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이 전년대비 각각 4.1%, 22.6% 감소한 반면 중국은 전년대비 3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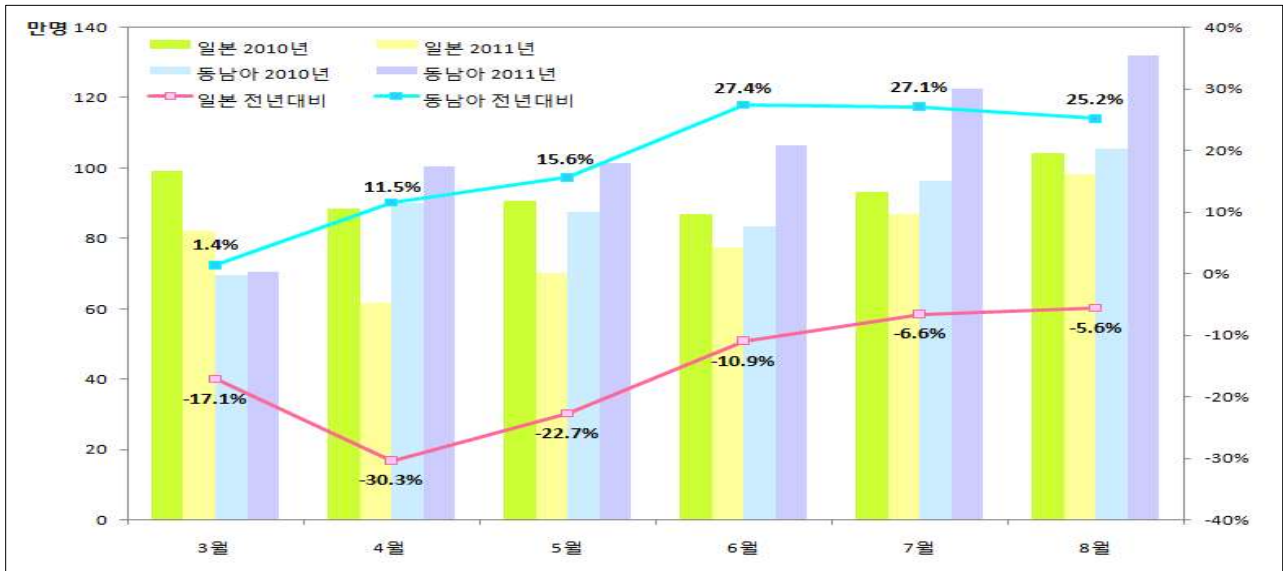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6개월간 일본노선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17.1%(3월) → △30.3%(4월) → △22.7(5월) → △10.9(6월) → △6.6(7월) → △5.6(8월)로 4월 감소폭이 커졌다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여행소비심리가 회복되며 감소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체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20.0%로 전년대비 8.2%p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23.2%로 전년대비 3.5%p 감소하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감소분만큼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동남아시아가 일본지역의 감소분을 충당하며 성장세를 이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부정기편 증대, 일본 대체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8월 전년대비 25.2% 증가하며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여름방학, 한·EU FTA 발효로 인한 관세철폐 등의 영향으로 유럽노선이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동남아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단위 : 명)

구 분	일 본	중 국	동 남 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8월	1,041,714	994,025	1,055,489	363,687	263,617	116,116	58,139
'11년 8월	983,498	1,043,581	1,320,972	391,747	300,464	131,927	61,526
전년대비	△5.6%	5.0%	25.2%	7.7%	14.0%	13.6%	5.8%



〈그림 2〉 일본과 동남아 여객실적/증감률 변화

2011년 8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5.2%로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4.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0.1%('08.8) → 0.7%('09.8) → 2.8%('10.8) → 4.8%('11.8)

8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공급좌석 확대에 따른 환승여객 수요 흡수 등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한 510,305명, 환승률은 15.1%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5만명('09.8) → 43만명('10.8) → 51만명('11.8)

* 환승률 : 15.7%('09.8) → 13.6%('10.8) → 15.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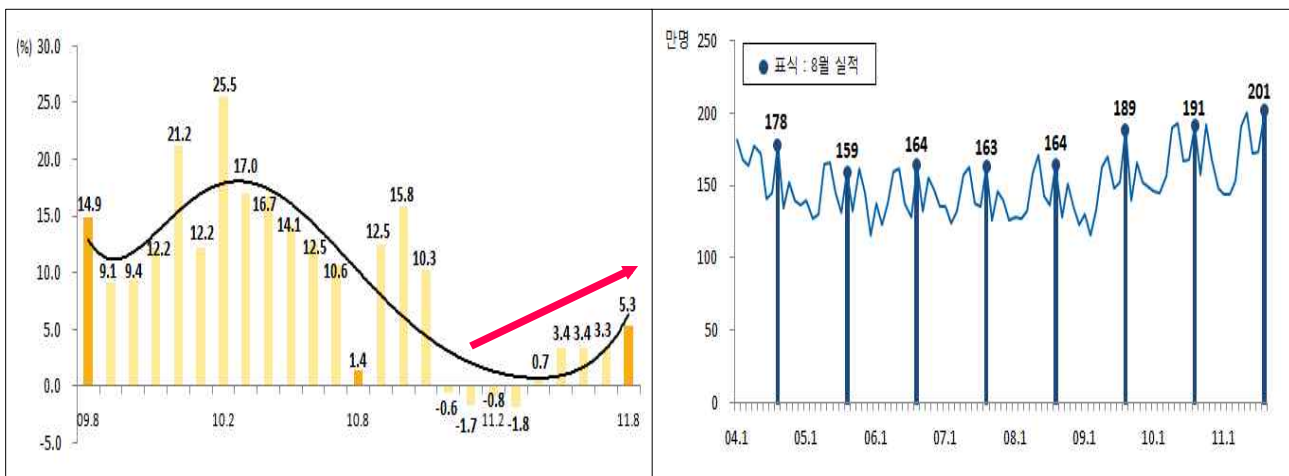
국내여객

8월 국내여객은 광복절 연휴, 여름휴가 등을 이용한 제주여행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5.3% 성장한 2,014,022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3% 성장에 머물렀던 것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여름철 성수기 효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8월 전년대비 10.9%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률은 제주노선이 87.3%, 내륙노선이 59.0%로, 제주노선과 내륙노선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제주노선 vs 내륙노선 비교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10년 8월	1,475,761	91.9%	437,780	65.1%
'11년 8월	1,636,011	87.3%	378,011	59.0%
전년대비	10.9%	△4.7%p	-13.7%	△6.1%p



〈그림 3〉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4〉를 통해 공항별 운항 및 여객실적을 보면 제주공항과 김포·김해·제주·광주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공항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KTX 2단계 개통이후 울산공항은 전년대비 46.0%감소, 포항공항은 전년대비 27.4%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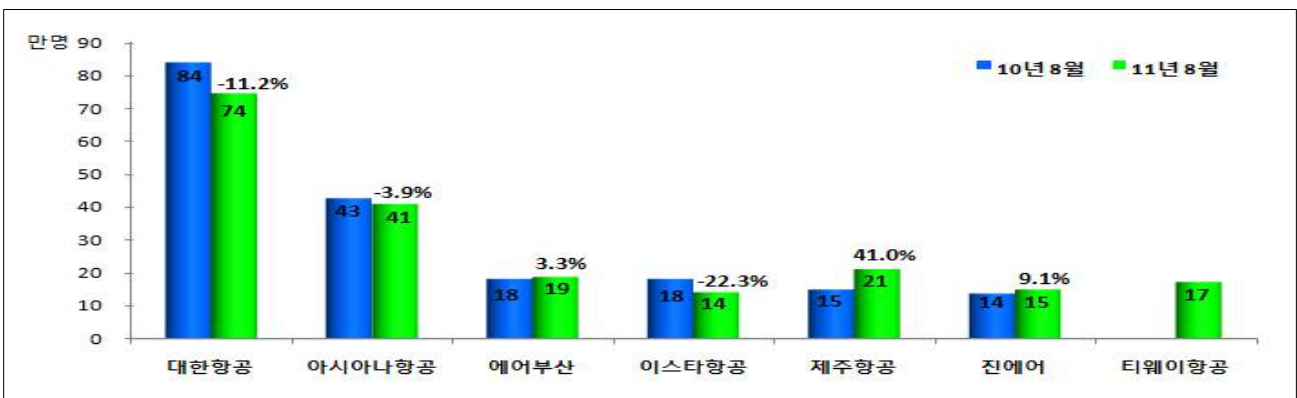
제주공항의 경우 유일하게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여름철 성수기 운항 증대(전년대비 16.4% 증가)가 여행수요를 더욱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이 전년대비 12.7%포인트 증가하며 54.5%를 기록, 김해-제주노선은 6.2%포인트 증가한 61.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제주공항의 증가세는 9월 추석연휴, 10월 개천절을 이용한 여행수요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8월	'11년 8월	전년대비	'10년 8월	'11년 8월	전년대비
제 주	4,162	4,845	16.4%	757,564	842,124	11.2%
김 포	4,362	4,786	9.7%	654,605	689,071	5.3%
김 해	1,629	1,676	2.9%	219,744	227,986	3.8%
광 주	425	456	7.3%	56,389	57,295	1.6%
청 주	327	330	0.9%	52,983	52,625	△0.7%
대 구	303	311	2.6%	48,354	45,123	△6.7%
인 천	198	229	15.7%	25,083	27,257	8.7%
여 수	243	238	△2.1%	25,940	23,942	△7.7%
울 산	354	241	△31.9%	39,544	21,355	△46.0%
포 항	155	149	△3.9%	14,628	10,617	△27.4%
군 산	62	58	△6.5%	8,101	7,653	△5.5%
사 천	74	74	0.0%	6,512	5,475	△15.9%
원 주	27	29	7.4%	3,401	3,227	△5.1%
무 안	9	5	△44.4%	693	272	△60.8%

8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860,068명, 분담률은 전년 대비 8.8% 포인트 상승한 42.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13.7%('08.8) → 31.5%('09.8) → 33.9%('10.8) → 42.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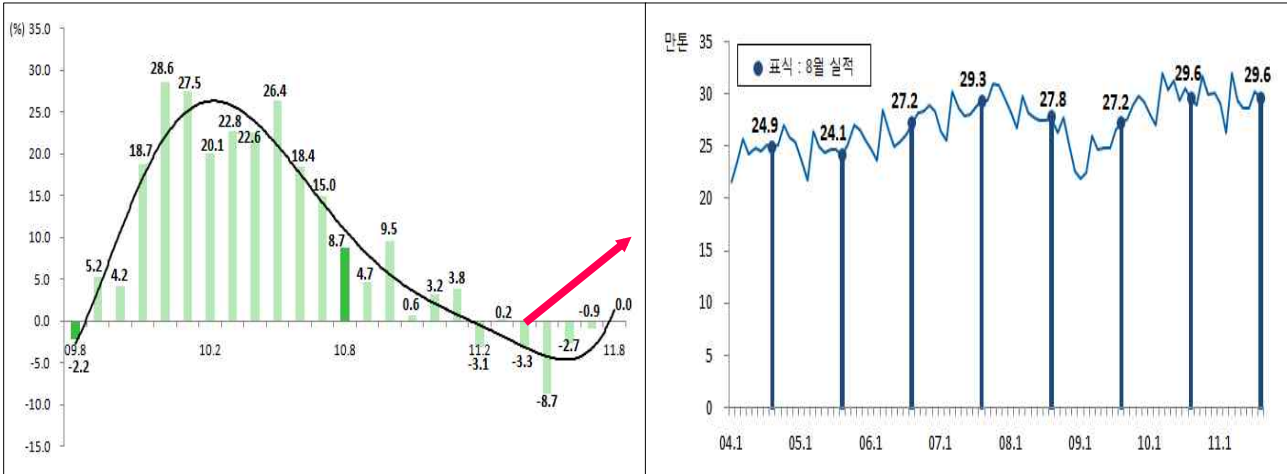
〈그림 4〉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항공화물

8월 항공화물은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제둔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저하,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반도체시장 침체지속, 제품 소형화 추세로 인한 중량감소 등의 영향으로 IT관련 수출입물량이 지속 감소함으로써 전년 대비 0.0% 기록하며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단가하락, 재고조정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0.8% 감소한 271,326톤을 기록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24,309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5%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8월 전년 대비 2.0% 감소하며 전월에 이어 전체 항공화물실적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¹⁾ 제주공항이 8월 전년 대비 15.5% 증가, 김포공항이 8월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1) 제주공항: 2011년 8월 기준 42.8% 점유, 김포공항: 2011년 8월 기준 29.8% 점유



〈그림 5〉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아래 <표 5>는 지역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일본·미주·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주·유럽은 경제 불안이 부각되고,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어 전월에 이어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공화물의 감소추세는 주요품목인 IT제품의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8월 IT제품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정체됨에 따라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최대 IT수출국가인 중국과 중남미, 중동 등 개도국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최근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 EU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8) 26.4% → ('11.8) △2.4%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8) 16.6% → ('11.8) 11.2%

* 단가 추이 ('10.8 → '11.8, \$) : (D램) 2.4 → 0.57,

(디스플레이 패널(TV용 LCD)) 339 → 251

〈표 5〉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8월	38,911	51,875	69,184	61,290	45,083	4,110	2,931
'11년 8월	35,237	52,031	70,908	59,306	44,975	4,899	3,969
전년대비	△9.4%	0.3%	2.5%	△3.2%	△0.2%	19.2%	35.4%

하반기에도 항공화물은 선진국의 재정위기 확산 등의 여파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Gartner 등 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3/4분기 이후 D램의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4/4분기에는 가격 또한 회복될 것이라 전망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항공화물 수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8월 98,010톤으로 전년대비 0.4% 감소, 환적률은 전년대비 1.8%포인트 상승한 47.9%를 기록하였다.

7월 공항 출입국동향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외국인 입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7월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6.8% 증가, 내국인 출국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75만 명, 내국인 출국은 2.9% 증가한 115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60.5% 수준이었다.²⁾

* 전체 출입국자 : 212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190만 명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7월 62만 명 → '11.7월 75만 명)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7월 112만 명 → '11.7월 115만 명)

2)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5.1%,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2.5%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이 전년대비 모두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국인 출국의 경우 일본지진의 영향을 받았던 김포공항의 실적도 회복되면서 전체 주요공항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다.

〈표 6〉 출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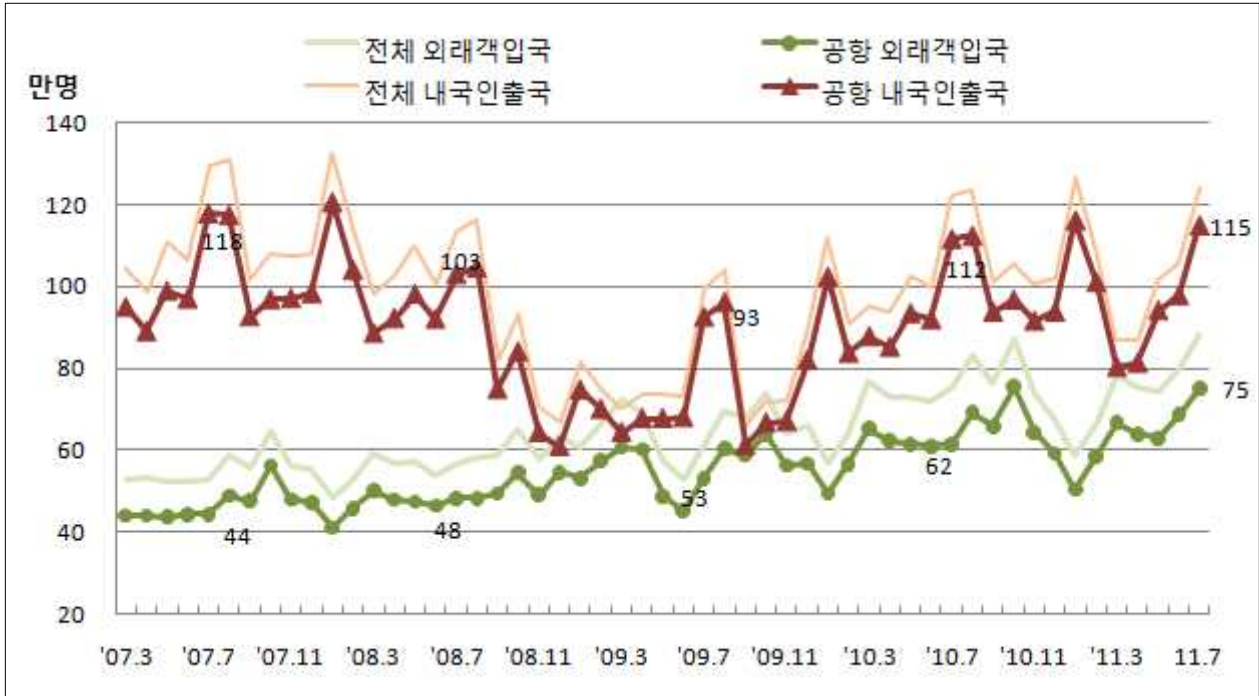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구 분	공항					비율	항구	비율	합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537	53	101	55	4	750	85.1	132	14.9	882
내국인출국	937	119	72	5	16	1,149	92.5	93	7.5	1,242
계	1,474	172	173	61	20	1,899	89.4	224	10.6	2,123

〈표 7〉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 7월 입국	'11. 7월 입국	증감 (%)	점유 (%)	'10. 7월 출국	'11. 7월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615,213	750,061	21.9	85.1	1,116,429	1,148,990	2.9	92.5	60.5
· 인천	457,782	536,848	17.3	60.9	923,005	936,962	1.5	75.5	63.6
· 김해	38,475	52,944	37.6	6.0	108,745	118,703	9.2	9.6	69.2
· 김포	67,223	101,214	50.6	11.5	63,964	71,765	12.2	5.8	41.5
· 제주	46,974	55,418	18.0	6.3	4,125	5,343	29.5	0.4	8.8
· 기타	4,759	3,637	-23.6	0.4	16,590	16,217	-2.2	1.3	81.7
항구 등	139,459	131,748	-5.5	14.9	107,294	92,639	-13.7	7.5	41.3
합 계	754,672	881,809	16.8	100.0	1,223,723	1,241,629	1.5	100.0	58.5



〈그림 6〉 외래국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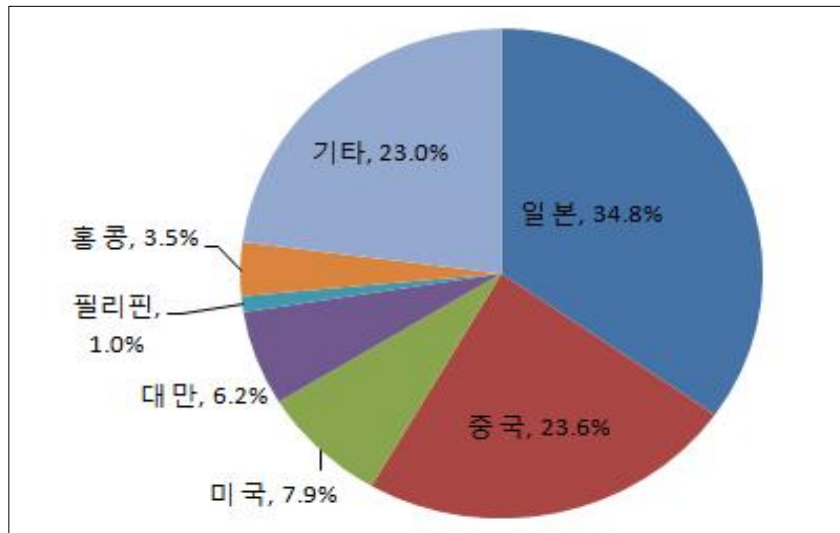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7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대만, 홍콩 국적의 외국인 입국이 전년 동월대비 30%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일본인도 22% 증가하였다.

〈표 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입국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일본	275,317	142,585	22,547	82,861	12,721	260,739	22.0	34.8
중국	244,573	122,145	10,291	9,307	32,762	176,728	38.4	23.6
미국	60,522	54,328	2,039	1,841	252	59,564	3.1	7.9
대만	47,198	38,662	3,034	164	4,902	46,770	32.4	6.2
필리핀	26,843	5,609	1,429	74	667	7,781	15.5	1.0
홍콩	26,482	23,609	2,271	111	358	26,377	33.5	3.5
전체	881,809	536,848	52,944	101,214	55,418	750,061	21.9	100.0

지난달 전년대비 감소현상을 보인 미국인 입국도 소폭 증가하였다. 2011년 7월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4.8%, 중국이 23.6%, 미국이 7.9%에 해당한다.



〈그림 7〉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포함 국가	비고
일본	일본	
미주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동남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중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유럽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양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괌, 호놀룰루 포함
기타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아프리카) 콩고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 노선	